

희망의 새시대



희망의 새시대를
만들어가는 농촌진흥청

보도자료

제 공 일 : 2014. 5. 9.

자료제공 :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

담당자 : 조영무 장장(김상우 연구사)

연락처 : 063-620-3531, 010-2432-4343

홍보담당 :

이 자료는 2014년 5월 9일 (조간)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흑염소 농장, 폐사율 줄이는 것이 중요 - 농촌진흥청, '계획적 교배관리와 구충제 투여' 강조 -

- 농촌진흥청(청장 이양호)은 환절기 흑염소 농장의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.
- 흑염소는 여러 마리를 집단으로 사육함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폐사율이 증가하고 폐사원인도 다양해 생산성 저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폐사의 원인을 분석해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.
- 흑염소의 폐사 중 가장 큰 원인은 사양관리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.
 - 예를 들어 추운 한겨울에 새끼가 태어나 얼어 죽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여름철인 8월과 9월에 암수를 분리 사육해 염소의 쌍불임을 피하는 것이 좋다.
 - 방목이 아닌 축사에서 키울 경우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려면 축사면적당 적정마리수를 키워 밀사를 피하고, 축사의 환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.
 - 염소 폐사 원인 중 비율이 높은 설사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충제의 투여와 축사바닥의 철저한 청소 및 소독, 물통과 사료

통의 세균 오염 방지, 신선한 사료 공급 등이 필요하다.

- 분만전후의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번식 흑염소에게 농후사료 보다는 양질의 조사료 위주로 사육해야 한다. 농후사료를 많이 먹여 살이 찌면 난산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.
- 분만 후 1주일 안에 폐사하는 경우 대부분 젖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미젖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초유를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한다.
- 새끼들이 있는 칸에는 인공유를 넣어 새끼의 성장을 돕고 설사 예방을 위해 콕시듐 예방약을 먹여야 한다.
- 염소의 첫 쌍붙임을 너무 빨리 실시하면 어미의 발육과 분만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어도 암컷이 10개월경 이상에 체중이 20kg 이상에서 쌍붙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거세한 수컷 염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요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소의 거세시기를 6개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장 경영상과 편리성을 위해 어린 염소를 거세한 경우에는 사료에 염화암모늄을 2% 정도 첨가해주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.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상우 연구사는 “흑염소 농장의 경영 성과는 폐사율 감소에 달려있다.” 라며 “계획적인 교배관리와 정기적인 구충제 투여, 허약축과 과비축의 분리사육 및 분만철 농장주의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” 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김상우 연구사(☎ 063-620-3531)에게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